

전남 1,600여 양돈농가 붕괴 위기

한미 FTA 타결로 전남지역 등 전국 양돈농가들이 심각한 타격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국 양돈산업의 9%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양돈농가들은 현재 관세를 물고도 국내 전체 돈육 물량의 25%를 수입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가 철폐될 경우 돼지고기 자급률이 50%이하로 떨어지게 돼 양돈산업 붕괴까지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1천600여 양돈농가는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와 함께 11일 양돈농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서울 정동 세실레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현행 관세를 물고도 작년 기준 돼지고기 수입량이 21만5544(미국산 6만849t)에 달해 국내 전체 소비량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

FTA 타결 10년내 수입산 국내시장 50% 잠식 분노 처리비용·사료값 폭등 등 3중고 시달려

황에서 관세가 철폐되면 돼지고기 자급률은 50% 이하로 떨어지고, 양돈산업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가들은 "값싼 미국산 쇠고기 수입까지 재개될 경우 국내 돼지고기 소비시장은 더욱 잠식되고, 돼지고기 가격급락으로 이어져 생산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가들은 이번 협정중 돼지고기 관련 양허(개방)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가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으로 당초 미국이 요구했던 5년보다 긴 10년을 관철시켰다고 강조하지만, 현

재 수입 돼지고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냉동육과 식용 설육(부스리고기), 돼지고기 가공품 등은 FTA 발효시점과 관계없이 2014년 1월 1일로 관세가 철폐된다는 지적이다.

화순 양돈농가 J모(46)씨는 "특히 향후 가축분뇨 처리비용과 사료가격이 폭등하고, 소모성 질환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쌀 다음으로 비중이 큰 양돈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FTA 타결로 한·미간 마리당 생산비와 생산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의 마리당 생산비는 17만4천202원인 반면 미국은 한국의 51%인 8만9

천360원에 불과하다. 또 생산성도 우리나라를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133으로 국내산을 크게 앞서고 있다.

나주 양돈농가 K모(57)씨는 "값싼 미국산 돼지고기가 수입되면 전남지역 양돈농가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향후 5년내 국내 양돈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한미 FTA 피해보전특별법을 제정할 때 양돈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법률적 보장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농가들도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당면과제를 푸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의 경우 1천604 양돈농가가 전국 934만 마리의 8.9%인 88만6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완도 청정특산물 맛보세요” 광주시세계는 11일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완도 청정 특산물전’을 열고 다시마·김·미역·강정 등 완도지역 특산품을 선보였다. 특산물전은 오는 15일까지 계속되며 강정(100g) 2천500원, 동치 다시마(600g 이상) 1만1천원, 파래김(1숙) 5천원에 판매된다.

(광주시세계제공)

전국 취업자 늘긴 늘었는데...

수완지구 5만8,000평

토공, 내달 5일 공금

정부 목표치 7개월째 미달

3월중 27만 3,000명 증가

지난달 전국의 취업자 증가수가 소폭 늘어났지만 7개월 연속 정부의 목표인 30만명을 밑돌아 고용 부진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광주·전남지역 153만4천명을 비롯해, 총 2천312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만3천명(1.2%) 증가한 것으로, 전월의 26만2천명보다는 취업자 증가폭이 소폭 개선됐지만 정부가 올해 초 제시한 목표치인 30만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업의 취업자가 31만2천명 늘어난 것을 비롯해, 전기·운수·통신·금융업(6만명), 건설업(4만4천명)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제조업(-6만명), 농업·림업(-5만2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3만2천명) 등은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15~19세(-2만3천명), 20~29세(-8만2천명), 30~39세(-8만9천명) 등 40세 미만은 모두 취업자가 감소했고 40~49세(11만6천명), 50~59세(22만4천명), 60세 이상(12만7천명) 등 40세 이상은 모두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는 임금근로자가 36만2천명 늘었고 비임금근로자는 8만9천명 감소했고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33만1천명)와 임시근로자(8만5천명)는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5만4천명)는 줄었다.

/최경호기자 choice@

한국토지공사는 광주 수완지구의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종교시설용지, 텃밭용지 등 88필지(5만8천평)를 오는 5월7일부터 추첨방식으로 일반에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용도별 공급규모는 연립주택용지 5필지를 비롯해, ▲블록형 단독주택 9필지 ▲주거전용 단독주택 48필지 ▲종교시설용지 4필지 ▲의료시설용지 1필지 등이다.

특히 택지개발지구 최초로 텃밭용지 21필지가 공급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텃밭의 공급면적은 4~42평이며, 분양가격은 평당 60만원이다.

문의 062-958-7253.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보해 복분자주 'APEC'이어

'한·중 정상회담' 만찬주 선정

보해 복분자주가 'APEC 정상회의'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 만찬주로 선정됐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는 복분자주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공식 만찬주'로 노무현 대통령과 원자빈 중국 총리의 식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주로 사용된 복분자는 알코올 함량 15%, 500ml 용량이었다. 보해 복분자주는 지난 2004년 출시, 2005년 미국서 열린 세계적인 와인경진대회 'The Dals Morning News Competition 2005'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수상하면서 세계무대서 고품질 와인으로 인정받았다.

/이종태기자 jilee@

주택자산가치 양극화 갈수록 심화

최근 5년 소득 불평등보다 집값 불평등이 훨씬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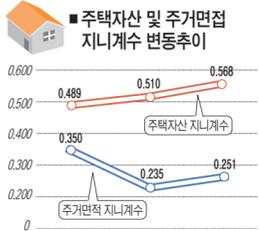
최근 5년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집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자산가치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층간 보유주택의 자산가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계층간 주택자산의 불평등 정도도 소득 불평등 정도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주택관련 지니계수 추이'에 따르면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1993

년 0.489에서 2002년 0.510으로 커진 데 이어 2006년에는 0.568로 더욱 확대됐다. 이는 계층별 보유주택의 자산가치 차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지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0.021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최근 5년에는 0.058이나 확대돼 주택자산 양극화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5년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이 지역 아



파트 보유가구의 주택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기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각각 73.1%, 68.6% 급등한 반면, 전국 주택 가격은 35.7% 오르는 데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균형을 표현하는 지수로, 0에서 1까지 숫자로 나타낸다. 0은 모든 구성원이 똑같은 소득을 갖는 경우고, 1은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독식하는 경우다. 따라서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높다.

그쳤다.

이와 관련,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는 1993년 0.281, 2002년 0.312, 2006년 0.310 등으로 주택자산 지니계수보다 낮게 나왔다. 이는 주택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소득 불평등 정도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최경호기자 choice@

3월중 주택대출 증가세 사상 최저

중소대출은 사상최고

금융감독 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조치와 함께 주택구입 수요가 위축되면서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가 관련통계 작성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랭함에 따라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한 은행들이 앞다퉈 중소기업 대출에 몰

려들면서 중소기업 대출증가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70억원으로 은행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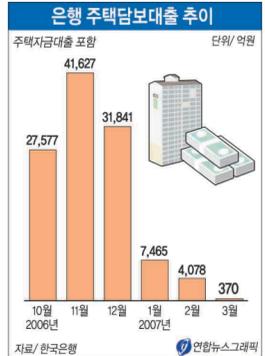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던 작년 상반기에 월 3조원 이상의 대출

증가세를 보이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위축된 셈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작년 12월 3조1천841억원에서 올해 1월 7천465억원, 2월 4천78억원, 3월 370억원 등으로 가파른 속도로 위축되는 양상이다.

마이너스통장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7천339억원에 그쳐 2월의 1조8천812억원에 비해 절반 이하로 위축됐다.

대기업 대출은 5천958억원이 줄어 신규대출보다 기존 대출상환 규모가 더 됐다.

/정필수기자 bungy@



자료/한국은행 연방뉴스그래픽

모디쉬갤러리 광주직영전시장 Grand open

이제 두압동 흠플러스 맞은편 모디쉬갤러리 광주직영전시장에서 엔틱의 명품을 만나십시오!



open 기념 한정특별판매

- 동블랑 2+2 가족소파 2,900,000 → 1,400,000원 (10조한정)
- 아그네스 2+2 가족소파 3,250,000 → 1,600,000원 (10조한정)
- 황옥 4인 대리석식탁 1,300,000 → 690,000원 (10조한정)
- 엔틱전화기(선착순 방문고객) → 39,000원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062)252-3001~2 / 금호월드 7층 ☎(062)350-8764

Open기념 향토셀침대, 장수온돌침대 한정판매

- HS-6720 비트 1,990,000원(5조한정판매)
- JSD-비트Q 1,470,000원(5조한정판매)

동양주IC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민항지구입구
요금 1000원
● 흠플러스 동양주침
● 인국통신